

복음과 율법 2장.

율법 = 명령 VS 복음 = 약속

율법=명령	복음=약속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산다” If(만일) / then(그러면)	“내(하나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살게 되었다” because(때문에) / therefore(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명령 =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약속 =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는데 내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 특징이 신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닿고, 신을 찾으며, 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분이 다 이루셨다는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닌 것은 복음은 인과율,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적이기보다 종교적이 됩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 더 열심과 정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의 핵심에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는 것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교적 태도에 대해 ‘프릿츠 리데나워’는 종교적이란 것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쓴다고 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율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으로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는 감정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죠? 그건 율법은 나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오늘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의 생각 속에 있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란 구도부터 짚고 그다음 율법이 과연 나쁜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메시지가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율법을 명령으로, 복음을 약속으로 설명한 관점으로 보자면,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명령’으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라고 하신 것은 ‘약속’으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 ‘Protevangelium’, ‘Proto’ - ‘원래의’, ‘evangelium’ - ‘복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운명인 인간이 살길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란 구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음의 약속이 풍성하게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이해하듯이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복음의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힘써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등 셀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 원래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명령과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린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율법의 3가지 기능

- 율법의 제1기능은 ‘정죄의 기능’

- 율법의 제2기능은 ‘억제의 기능’

- 율법의 제3기능은 ‘교훈적, 교육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으로 ‘잔 깔뱅’(존 칼빈)은 이 세 가지 율법의 기능 중에 신자에게는 제3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고,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으로 신약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명령이 바로 율법의 제3기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에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을 종종 인용하면서 징계와 연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율법은 과연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산상설교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참조 례 19:2; 신 18:13)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구절의 율법 조항조차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그 하나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오늘도 안식일에 바느질도 하지 않고 불조차 피우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르도록 한 버튼을 만들어 둘 정도로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10:2-3)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오해와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받은 복이 있는데 율법주의로 율법에 매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게 아니면 반율법주의로 방종하여 자기 소견에,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과 식, 곧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건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심지어 실패나 잘못으로 내가 나 스스로 무너지고 정죄 되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징계와 연단을 받아 더 깊어지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1. 인간이 가진 근본적 심성인 인과율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는 율법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생기는 종교심은 프리츠 리테나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2.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이해는 성경은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원시복음이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 갈뱅이 얘기한 율법의 3가지 기능을 다시 생각해보십시오.